

〈기여입학제, 이렇게 본다〉

기여입학제 도입의 전제 조건과 시행 과제

김 광 수

강원대 회계학과 교수



1. 머리말

최 근 사립대학의 기여입학제 도입론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반론과 비판 또한 거세게 일고 있다. 기여입학제 도입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기여입학제가 아직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 대학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각 분야에서 급진전되고 있는 국제화의 물결은 대학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대학이 앞장서서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일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 대학의 앞날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기여입학제 도입 논의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기여입학제 도입 문제는 이제 일부 사학의 재정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학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이를 위하여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시대적 대학관을 정립하여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염려한 바의 기여입학제 도입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기여입학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바를 검토하고, 기여입학제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제 조건과 시행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시대적 변화 요구의 공동인식과 대학관의 재정립

기여입학제 도입론이 제기된 지도 벌써 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기여입학제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공방만 계속되었을 뿐 지금까지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여입학제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었지만, 공전만 거듭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직시한다면, 이와 같은 부정적·소극적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이른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각 분야에서 서로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진 제국들은 각기 자국의 대학입시제도,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의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여 훌륭한 교육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국의 대학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서 외

국에까지 진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통계수치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학의 재정 상태는 외국 대학들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고, 따라서 교육여건 또한 형편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어떤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의 앞날은 물론이요, 대학의 존재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민 정서를 내세워 ‘대학만은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기여입학제만은 안 된다’는 식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바로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대학에 대한 시대적 변화 요구를 함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시급히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만사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대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이러한 대학관의 변화가 있어야만 바로 개인 능력의 향상과 대학의 발전, 더 나아가서 국력의 증강을 함께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개인의 적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시험 성적 위주의 획일적 입시제도가 입시 과열경쟁,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지출, 입시부정 등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야기시켜온 점을 생각할 때, 입시제

도의 과감한 개혁이야말로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급급하여 등한시되어 온 열악한 우리 대학의 교육여건을 과감히 개선시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은 대부분 누구나 인식하면서도 아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치관과 대학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반대 여론만 무성할 뿐 아무 결론도 얻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기여입학제 도입 논의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대학의 시대적 과제에 대하여 함께 인식하고 설득력 있는 시대적 대학관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새로운 대학관을 토대로 시대적 과제에 대하여 우리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한다면, 그동안 야기되어 온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한 막연한 국민정서상 거부감도 크게 완화될 것이다. 또한 우려하는 바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역기능의 문제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3. 기여입학제 운영 방안의 조속한 강구 : 기여금 관리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여입학제 도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시행상 야기될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여입학제를 얼마나 공평하

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모든 제도의 성공 여부는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에 따라 좌우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특히 기여입학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의 시행에 앞서서 국민의 지지를 구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찬성론자들이 기여입학의 자격 및 범위, 기여금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야기될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여입학제 도입이 당장 허용된다면, 상위권 대학으로의 기여입학 편중현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간의 갈등과 대학간의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따라서 기여입학제 도입에 앞서 가장 먼저 강구해야 할 문제는 기여금의 관리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편중현상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야기될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필자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기여금의 관리 및 배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여금 관리는 크게 대학별 관리와 공동 관리의 두 가지 형태가 제시되고 있으나, 대체로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다. 필자도 이 견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기여금 관리는 각 대학의 발전과 모든 사립대학의 개별적·전체적 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그동안 상위권 대학에

속하는 몇몇 명문 사립대학에서 기여입학제를 적극 추진하여 온 반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하위권 대학에서는 기여입학제의 도입이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바, 위와 같은 경향은 이른바 명문 사립대학과 중·상위권에 속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기여금 액수 또한 클 것이지만, 하위권 대학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려하는 바의 중·상위권 대학으로의 기여입학 편중현상은 일정 비율의 수학능력을 갖춘 지원자에 한정하여 입학자격을 부여하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경우 하위권에 속하는 대학에서는 기여금 모금액수가 상위권 대학에 비하여 엄청나게 적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 관리를 위한 기여금의 부담을 상위권 대학만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견해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위권 대학들이 계속 상위권 대학에만 의존해서 자기 발전을 게을리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대학의 공동 발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여입학을 허용하는 대학의 경우는, 중·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하위권에 속하는 대학들도 기여금 수입액의 상당액을 공동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기여금의 공동 관리를 위한 각 대학의 부담 금액은 기여금 수입의 50%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개별 대학별로 자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까 한다. 그리고 기여금을 대학의 개별적 발전과 유기적인 관련 아래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 관리 기여금도 해당 대학의 교수와 학생수 및 비율 그리고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으로써 우려하는 바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를 통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하위권 대학도 학교 발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한편, 기여금 모금과 관련하여 각 대학별로 총장 지휘 아래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하여 기여입학생의 선정은 각 대학에서 관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여금 모금은 이 제도의 취지나 기여금 배분 관리 등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만이라도 체3의 단체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각 대학의 기여금 사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기여금 사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행 원칙과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실 기여입학제가 도입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과 역기능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기여금 관리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신뢰성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대학의 모든 재정 운영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대하여 철저한 외부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 따라서 모든 대학이 지금부터라도 대학 재정을 완전 공개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 또한 기여입학제 시행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과 현실은 매우 절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학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제기된 기여입학제 도입론도 이제 일부 사립대학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대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학 기여입학제 도입이 우리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일한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등록금 인상,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재단전입금 확대, 무조건부 기부금 확대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기여입학제 도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 대학의 현실과 시대적 변화 요구가 외면된 채 국민정서상 거부감이 크다는 이유

로 별 성과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이는 우리 모두 너무 안일한 대학관에 젖어 오로지 입시 문제에만 집착하여 환경 변화와 대학의 본질적 기능에 큰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여입학제 논의를 보다 진척시키고, 나아가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학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하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여입학제도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 및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시행상의 제도적 장치와 투명한 대학 재정 운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한 기여입학제 시행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

김광수/서울대 사대 일반사회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독일 만하임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강사 등을 거쳐 현재 강원대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독일세법론』, 『인플레이션 회계론』, 『회계이론』 등이 있고, "개정 상사법에 의한 한·독 주식회사의 회계모델", "독일회계법의 발전"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